

중국 방문결과

중 국 방 문 결 과

-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와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호협력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양 시간의 “우호친선 교류합의서”를 체결하고,
- 우리 서산시 출신 애국지사 김용환 선생의 유적조사와 현지답사를 하고 귀국함

□ 중국방문 전까지의 교류상황(교류일지)

- '96. 1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한 진황도시 및 치박시와의 교류 의뢰
- '96. 2
 - 우리시 기본자료 송부 및 양시(진황도시, 치박시) 자료 검토
- '96. 3
 - 진황도시 시장 우리시 방문
 - 지속적 교류협력 추진키로 합의하고 서산시장 초청 제의
- '96. 4
 - 진황도시장의 서산시장 초청
- '96. 7
 -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국 진황도시 방문
 - 우호친선교류 의향서 교환

○ '97. 4

- 진황도시 의회 왕대명 의장 우리시 방문
 - 경제협력 간담회 개최
 - 우호친선교류합의서 체결을 위해 상호 긴밀한 노력 강조

□ 방 문 개 요

- 기 간 : '97. 7. 22(화)~7.30(수) (8박 9일)
- 방문단 : 7명
 - 단장 : 시장
 - 단원 : 시의회부의장,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장, 기획계장, 문화공보담당관실 강완규
- 방문지
 - 북경 → 결연시인 진황도 → 항주대 및 애국지사 김용환 선생유적지 탐방
 - 상해의 임시정부 청사 및 윤봉길 의사 의거장소인 홍구공원

□ 방 문 성 과

1.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와 “우호친선교류 합의서” 체결

- 일 시 : '97. 7. 23(수) 18:40
- 장 소 : 중국 진황도시 국제호텔
- 서 명 자
 - 우리측 : 김기홍 시장
 - 중국측 : 조철연 시장

2. 교류확대 합의

- 양 시는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하여 양 시간의 상호보완 되고 시발전예 보탬 이 되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협력관계를 갖도록 함.

-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

· 기 간 : 1~2개월

· 인 원 : 1~3명

· 시 기 : 상대국 언어에 대한 기초 능력 확보 후 실시('98년 이후)

※ 추후 서신을 통해 확정

- 민간교류의 확대

· 문화, 체육, 위생분야등 민간교류 적극 주선

- 무역, 경제교류 협력

· 기업체간 경제 정보, 경제관련 자료 수시 제공

· 양 시간 기업체 교류 및 무역등의 적극 주선

3. 애국지사 “김용환” 선생 유적조사

- 방문지 : 절강성 항주시내 절강병원터(현 중국인민 해방군 초대소),

고려사터 등

- 면담자 : 항주대 모소석 교수(현 절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김건인 교수, 요준화 연구원

- 내 용

김용환 애국지사는 1892. 8. 1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서 출생
성균관의 마지막 유생을 거쳐 한일 합방후 조선 총독부 내무부 주사로
근무하다가 독립운동에 투신

21세때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의 주요업무 수행중 피질로 인하여 27세의 일기로 사망
(1919. 8. 18 절강병원)

80여년전의 자료와 증언등을 취득하기 어려웠고 옛 독립신문과 문헌등을
토대로 현지 조사에 임한바 김용환 선생이 절명하셨다는 절강병원터는
찾았으나 이미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인민해방군 초대소를 신축해서 운영
하고 있었으며, 신축작업중에 발굴된 절강병원의 경계석 2점을 목견하고
고려사터에 시신을 안치했다는 자료에 의거 옛 고려사터(지금은 호텔등
숙박업소 시설) 주변을 둘러보았음.

4.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인 홍구공원 탐방

□ 현재 중국의 상황

○ '91년 한·중 수교 관계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체제는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일부 개방된 도시중심의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음.

중국은 방대한 토지와 인력등을 바탕으로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 유치에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었음.

현재의 중국은 과거 우리나라 1960년대 생활수준이었으며 경제, 문화, 교육 등 열악한 상태였음

우리시와 교류중인 진황도는 인구가 260만이고 면적은 우리시의 10배나 되는 7,752km²로 항구시설과 유리산업이 발달된 개방도시임

□ 전 망

- 진황도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개방도시로 기업체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우리시도 교류의 실익을 얻고자 하는 입장으로 점진적으로 상호 교류확대가 요망되고, 중국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중국이 빠른속도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시점을 대비해서 기업체와 민간부문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 진황도시 경제홍보 자료 및 우리시 홍보자료 수시 제공
- 서해안시대를 맞아 언어, 의식주 등 생활풍습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공무원 연수 실시

- 양시 기업체간 상호 경제실익을 도모하도록 주선 및 특산품과 기업체 상품 전시관 개설
- 양시의 문화, 교육, 체육, 위생등 각 분야별로 교류 확대
- 우리 서산시가 중부권역의 무역중심지로 부상할때를 대비하여 중국의 개방도시인 진황도시가 대 중국 무역의 창구 구실을 하도록 상호 협조